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10.8) 보도자료 스크랩

2024.10.10.(목)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대경일보	NEAR, 동북아 지방외교 선도 국제기구로 우뚝	
2	신문	세명일보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3	인터넷	국내매일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4	인터넷	경북뉴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5	인터넷	파이낸셜경제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6	인터넷	CBN뉴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7	통신사	글로벌뉴스통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8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개정, 새로운 도약 다짐	
9	인터넷	월드일보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10	인터넷	풍지환경뉴스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11	인터넷	산림복지신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12	인터넷	경남에나뉴스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13	인터넷	다경뉴스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14	인터넷	케이투데이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15	통신사	프레스뉴스통신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개최	

NEAR, 동북아 지방외교 선도 국제기구로 우뚝

✎ 김대호 기자 Ⓞ 승인 2024.10.09 15:14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28주년 'NEAR DAY'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 지난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28주년 기념행사에서 양금희(왼쪽)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임병진 NEAR사무총장이 한글 명칭 개정을 알리는 영상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30주년을 앞두고 동북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개정, 새로운 도약 다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은 지난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 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포항시), 5개의 읍 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 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 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대호 기자 homigod@naver.com

동북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1996년 경북 주도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 선도 국제기구 성장 30주년 앞두고 동북아지방정부연합 명칭 개정, 새 도약 다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이 지난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열고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북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 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사무총장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

총영사 축하,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 단체로 확대,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 결연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키지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새미를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 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 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 연합'으로 변경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중심이 됐다"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 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율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 지역(NAT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 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기사입력 : 2024.10.08 19:22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30주년을 앞두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개정, 새로운 도약 다짐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은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오명 기자 cbc2047@naver.com]

<저작권자©국내매일 & news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뉴스팀 기자 / phfat 입력 : 2024년 10월 08일(화) 14:06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됐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HOME > 뉴스투데이 > 전국 뉴스 NETWORKS > 대구/경북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 설 28주년 『NEAR DAY』 개최

김지훈 기자 ✉ / 기사작성 : 2024-10-08 15:20:25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 연합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 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됐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s://www.fnewstv.com>]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 - 30주년을 앞두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개정, 새로운 도약 다짐 -

2024년 10월 08일 [씨비엔뉴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_near_day행사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은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

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씨비엔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씨비엔뉴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송영기 기자 승인 2024.10.08 21:00



(사진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주년 NEAR DAY 행사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경북=글로벌뉴스통신]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은 10월 8일(화)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

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주년 NEAR DAY 행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기 기자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개정, 새로운 도약 다짐

✎ 박영기 ④ 승인 2024.10.08 16:16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경북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은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경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기 pakryk2002@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박성상 기자 / rose0482@naver.com 입력 : 2024년 10월 08일(화) 14:06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월드일보=박성상기자]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됐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url : http://www.xn--hy1bn7mwqiita.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00&idx=82620

Copyrights ©월드일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문화·교육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 입력 2024/10/08 14:06 |

0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정해영 기자]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많이 찾는 뉴스

최신

기간

- 1 경북도, 아파트 1층에서 온마(
- 2 김천은 쓰레기 천국!
- 3 경북 사회복지사, 화합과 협력위
- 4 아포음 행정복지센터 준공식 개
- 5 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
- 6 김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가
- 7 김천시 모태화 교육장! 공지환경
- 8 '동생은 최고의 선물이다' 구미시
- 9 경북도,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 10 2024 김천시민체전 자산동 선수

경북도, 아파트 1층에서 온마; 이 키운다!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핵심 돌봄 대책' 6000'이 시군 현장에 정식 가동된다.

참간축사

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이 기연
공지환경뉴스 기자 2021/0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창간축사] 나영민 ; 부의장
공지환경뉴스 기자 2021/0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중심이 됐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간축사] 배낙호 ; 축구단 대표이사
조수연 기자 2021/01/22 22:0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다른기사보기

이마트 성서점·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달성군에 생필품 100세트 전달
대구시교육청,제7회 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개최 "꿈을 향한 도전, 함께 응원해...
북구청 발끝에서 시작되는 건강 채움, 대구 복구, 서리지 맨발걷기 행사 개최

저작권자 © 공지환경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길 영상제보 기사제보 후원하기

상호 : 공지환경뉴스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발행인 : 이재용 대표이사 : 이재용 편집국장 : 정해영 취재본부장 : 조운상 청탁방지담당관 : 이재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용 Tel : 010-9352-1411 Fax : 054-435-0907 e-mail : jyong1411@naver.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625 등록일 : 2021년 01월 13일

Copyright © 공지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 30주년을 앞두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개정, 새로운 도약 다짐

산림복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4년 10월 08일(화) 14:57

[산림복지신문]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 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역대 NEAR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복지신문 sks6535@hanmail.net

이 기사는 산림복지신문 홈페이지(www.fgs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fgsnews.co.kr/article.php?aid=1808313377>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0일 09:21:52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8 서덕수 기자 | ㉠ 승인 2024.10.08 15:18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 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 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됐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덕수 기자

경상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 30주년을 앞두고 동북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개정, 새로운 도약 다짐

기사입력시간 : 2024/10/08 [16:50:00]

편집부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 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됐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문명 케이투데이
등록일 24-10-08 14:06
기사주소 http://www.ktoday.co.kr/news_view.jsp?ncd=79621
기자명 백영준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day행사/경북도 제공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하 NEAR) 사무국은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HOME > 라이프 > 문화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프레스뉴스  / 기사작성 : 2024-10-08 15:20:25

1996년 경북도 주도로 창설,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창설 28주년 『NEAR DAY』 개최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은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NEAR DAY』행사를 개최하여 NEAR 창설 28주년을 축하하고, 한글 명칭 개정에 따른 NEAR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NEAR DAY』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창설 28년 만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 시도 국제관계대사, 주부산 외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NEAR 활동영상 시청,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환영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우리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 한글명칭 개정 현판식, 축하공연, 교류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NEAR가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로 출범한 이후,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82개 회원, 2개 준회원, 1개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단체 등 총 90개의 단체로 확대되어 오면서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한글명칭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걸음을 함께 응원했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NEAR가 성장하는 데에는 1996년 NEAR의 창설을 주도하고 2005년 포항 상설사무국 개소 이래 예산을 지원해 온 경북도 및 포항시 관계자와 역대 NEAR사무총장, 회원단체, 한동대 및 영남대, 카자흐스탄·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부산 외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과 함께 NEAR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30주년을 앞두고 한글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연합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변경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NEAR는 28년동안 동북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 구심이 됐다"고 말하며 역대 NEAR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병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다자교류와 양자 협력 증진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82개 회원, 2개의 준회원, 1개의 특별회원, 5개의 옵서버 등 9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pressna.com>]